

[제2019-34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
배포일시	2019.7.1(월)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hannah@kccla.org	담당자	Hannah Cho

‘Alegria’ 한국음악과 다양한 재즈와의 만남



- ▶ 공연명 : 2019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9 ARI Project」
Alegria: Creating music with joy from different cultures
- ▶ 일시 : 2019년 7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30분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Kelly Che and the Chestondi Project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Hannah Cho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2019 공연작품 공모전 「2019 ARI Project」 다섯번째 무대로 켈

리 최 & 체스톤디 프로젝트와 함께 7월11일(목) 저녁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알레그리아” 퓨전 재즈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켈리 최와 그의 밴드 6명 (에디 레스토 - 베이스, 조 로톤디 - 건반, 아론 세르파티 - 드럼, 월 브람 - 기타, 프랭크 폰테인 - 색소폰, 조이 드 레온 - 퍼커션)이 함께하는 특별한 공연으로 각각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지고 음악 활동을 해 온 7명의 멤버가 함께 만들어내는 퓨전 재즈 공연이다. 이들은 팝, 재즈, 월드뮤직 등을 다양한 나라의 재즈 스타일과 리듬으로 함께 녹여내는 하이브리드 재즈 장르를 지향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의 팝 음악을 브라질, 미국, 라틴 재즈로 재 해석하여 새롭게 편곡한 곡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알레그리아’ 공연은 세 가지 재즈 장르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 첫 번째는 미국에서 1960년대 큰 인기를 끈 **브라질 재즈**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브라질 음악인 ‘The Girl from Ipanema’를 시작으로 장필순의 ‘어느새’,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 등의 한국 팝 음악을 브라질 재즈와 리듬으로 새롭게 편곡한 버전을 들려준다. 이 외에도 브라질 음악 메들리 등도 함께한다.

두 번째는 **재즈의 본고장 미국 재즈**로, 한국인들도 크게 사랑하는 재즈곡인 ‘Autumn Leaves’를 시작으로, 한국 민요인 ‘한오백년’을 미디엄 템포 스윙 스타일로 편곡해 들려주며, 정통 재즈에서 많이 사용되는 odd-meter(변박자: 흔하게 사용되는 세 박자, 네 박자 곡이 아닌 박자를 가리킴) 곡들도 들어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재즈곡인 ‘Fly Me to the Moon’을 변박자인 4분의 7박자로 새롭게 편곡해서 들려준다. 이 외에도 재즈 발라드로 편곡한 ‘밀양 아리랑’, 그리고 펑크 재즈로 편곡한 김현식의 ‘사랑 사랑 사랑’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양한 **라틴 재즈**로, 라틴 재즈곡 중 가장 유명한 ‘오예 꼬모바’를

시작으로, 페루의 업 템포 리듬인 페스테호로 새롭게 편곡한 해바라기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들어볼 수 있으며, 라틴 볼레로 고전 ‘베사메 무초’와 한국 가요 고전 ‘봄날은 간다’를 믹스한 새로운 버전을 들을 수 있고, 쿠바 리듬인 단손으로 편곡한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도 함께 한다.

박위진 문화원장은 “미주 지역에서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원에서 다양한 시도의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되어 매우 기쁘다. 특히, 이번 공연은 한국음악을 다양한 장르의 재즈 음악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할 예정이다.”며, “또한 미국에서 한류의 저변 확대에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한다.

www.kccla.org, 323-936-3015

-프로그램-

(Partial list)



<Brazilian Jazz>

- 1) **A Girl from Ipanema** -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브라질 재즈곡 중 하나이다. 1960년대는 미국에서 브라질 재즈가 유행한 시대로, 이 곡은 1965년 그래미 '올해의 레코딩'상을 받았다. 1962년 안토니우 카를로스조빙이 작곡한 곡으로, 비니시어스 지 모라에스와 노먼 김벨이 각각 포르투갈어와 영어 가사를 썼다.
- 2) **어느새(Vain)** - 1989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장필순의 데뷔앨범 타이틀곡으로 한국의 재즈 뮤지션 김현철이 곡과 가사를 썼다. 이번 공연에서는 원곡의 느낌을 살리면서 브라질 리듬 중 하나인 '바이아오' 리듬과 믹스해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 3) **우울한 편지(Sad Letter)** - 1987년 유재하의 데뷔 앨범이자 유작 앨범인 '사랑하기 때문에'에 실린 곡으로 그의 사후에 새롭게 조명받으며 더욱 유명해졌다. 이 곡은 2004년 영화 '살인의 추억'에 나오며 다시 주목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원곡 분위기의 보사노바 리듬에 새로운 재즈 하모니로 모던함을 가미하였다.

<American Jazz>

- 4) **Autumn Leaves** - '어텀 리브스'(고엽)은 재즈 음악에서 가장 잘 알려진 곡 중 하나

로 수많은 장르로 다양하게 연주되는 곡이다. 조세프 코스마 작곡하고, 자끄 프레베르, 자니 머서가 프랑스와 영어 가사를 붙였다. 피아니스트 로저 윌리엄스의 연주 버전이 1955년 미국 빌보드 차트의 넘버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정통 재즈 스타일로 연주한다.

- 5) **한오백년(500 Years)** - 한오백년은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가사와 곡조를 담고 있는 한국 민요이다. 원래 강원도 민요인 이 곡은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노래이다. 이 곡은 원래 느린 발라드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 공연을 위해 미디움 템포의 스윙으로 편곡하였다.
- 6) **Fly Me To The Moon** - 1954년에 바트 하워드와 케일 발라드가 함께 작곡한 이 곡은 원래 가사에 나오는 "In Other Words"가 제목이었다고 한다. 1964년의 Frank Sinatra의 버전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 곡은 그동안 수많은 이 곡은 1999년 송라이터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4분의 7박자라는 다소 특이한 박자의 재즈로 연주한다.
- 7) **Milyang Arirang(밀양 아리랑)** -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아리랑은 남한과 북한 전역에 60가지가 넘는 다른 버전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전통 가락이다. 밀양 아리랑은 경상도 지방의 아리랑으로 한국의 3대 아리랑 중 하나이다. 원래 업템포곡인 밀양 아리랑을 이번 공연에서는 아름다운 팝 재즈 발라드곡으로 재탄생시켰다.
- 8) **Love Love Love(사랑 사랑 사랑)** - 1991년 김현식이 작사 작곡한 ‘사랑 사랑 사랑’은 당시 신나는 포크 팝 장르의 가요로 발표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펑크 재즈 스타일로 새롭게 편곡하였다.

<Latin Jazz>

- 9) **Oye Como Va + Spooky** - '오예 꼬모바'는 라틴 음악계 거장 티토 푸엔테가 1962년에 만든 곡으로 1970년 카를로스 산타나의 버전으로 유명해졌다. '스푸키'는 원래 색소포니스트 마이크 샤피로의 연주곡이 원조이다. 1968년에 팝 그룹 클래식스 포의 버전이 나오면서 유명해졌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 두 곡을 라틴 리듬 '차차차'로 묶어 함께 연주한다.

- 10) **You Are My Happiness(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 1983년에 나온 한국의 대표적인 포크 듀오 해바라기의 대표곡 중 하나로, 이번 공연에서는 페루 리듬 업 템포 리듬 중 하나인 '페스테호'로 새롭게 편곡하였다.

- 11) **Besame Mucho + Spring Is Gone(봄날은 간다)** - 1940년에 작곡된 라틴 발라드의 고전 '베사메 무초'와 1953년에 만들어진 한국 팝 발라드의 고전 '봄날은 간다'을 한 곡으로 묶어 라틴 발라드 리듬인 볼레로 장르로 묶어 새로운 버전을 들려주게 된다.

- 12) **If you come into my heart(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 조덕배의 1989년 포크 곡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쿠바 리듬인 단손 리듬으로 새롭게 편곡하였다.

- 13) **Sailor's Song(벃노래)** -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중 하나인 벃노래를 라틴 재즈 리듬으로 바꾸어 새롭게 편곡하였다.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공연작품 공모전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이다.

/끝/